『대순사상논총』 제58집 (2026), pp.219~257
https://doi.org/10.25050/jdaos.2026.58.0.219

대순진리회 일념교의 종교공간적 의미
- 명칭과 공간 구조를 중심으로 -

편 경 일 *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일념교를 종교건축이자 종교공간으로 보고, 그 의미를 명칭과 공간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일념교는 신생활관과 종무원 앞뜰을 잇는 다리이며, '수도를 함에 있어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 부여되어 있다. 관련 문헌의 용례를 검토한 결과, 일념은 사려(邪慮)와 사심(私心)을 경계하며 상제와 대순진리를 향해 현재의 마음을 하나의 방향으로 세우는 실천으로, 일심은 그렇게 세운 마음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 상태로 이해된다. 공간적으로 신생활관은 수도인이 수도의례에 앞서 머물며 준비하는 생활 공간이고, 일념교 건너편에는 종무원과 대원종, 대순성전 등이 자리하며 숭도문을 거쳐 정내(庭內)와 영대(靈臺)의 수도의례 공간으로 동선이 이어진다. 일념교의 왕복 동선은 수도의례에 앞서 상제와 대순진리를 향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의례를 마친 뒤에도 그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잃지 않도록 환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다리 위에서는 수도인이 오가는 한편, 아래의 강천로에서는 일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계속되며, 두 이동은 위아래에서 병존(竝存)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념교를 건너는 행위는 세속에서 성역

* 대진대학교 박사수료, E-mail: happyeon2020@gmail.com

으로 진입하는 통과가 아니라, 세속적 통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장 내부의 생활 공간과 수도의례 공간을 오가면서도 상제와 대순진리를 향한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수도 이해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념교는 수평적 연결과 수직적 병존 속에서 일념의 실천을 되새기게 하는 종교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대순진리회, 일념교(一念橋), 일념(一念), 일심(一心), 종교건축, 종교공간, 공간 구조

Ⅰ. 서론
Ⅱ. 일념교 분석의 종교공간론적 관점
Ⅲ. ‘일념교’ 명칭의 의미
Ⅳ. 일념교의 공간 구조
Ⅴ. 결론

Ⅰ. 서론



<그림 1> 일념교(一念橋)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는 일념교(一念橋)라는 다리가 놓여 있다. 여주본부도장 준공 당시 발행된 『대순회보』 7호는 일념교를 종무원 앞뜰과 신생활관을 잇는 화강석 아치형 다리로 소개하고, 그 의미를 “수도를 함에 있어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설명하였다.[1] 이 기록은 일념교의 위치와 연결 대상뿐만 아니라, 그 명칭에 부여된 의미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2]

---

1) 「새로운 수도장이 여주에 완공되다」, 『대순회보』 7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7), p.3. 당시 기사에서는 해당 건물을 ‘종무소’로 표기하고 있으나, 현재 대순진리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종무원’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에 현재 공식 홈페이지의 표기에 따라 ‘종무원’으로 통일하였다.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홈페이지》, 「도장전경」, ‘종무원’ (http://www.daesoon.org/about/dojang_0102.php, 2026. 7. 12. 검색).

2) 이후 『대순회보』에서도 ‘일념교’라는 표제 아래 대순, 일심, 보은, 믿음과 실행 등 수도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글들이 게재되었다. 유석구, 「無道世上 구원하는 大巡」,

그러나 일념교의 명칭과 그 설명 사이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일념교의 의미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명칭에는 '일심(一心)'이 아니라 '일념(一念)'이 사용되었다. 『전경』에서는 '일심(一心)'과 '한마음'이 여러 차례 직접 나타나지만, 일념(一念)의 직접 용례는 확인되지 않는다.[3] 반면 『대순지침』과 『대순진리회요람』에서는 일념이 경천과 수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4] 따라서 일념교의 '일념'을 일심과 동일시하기보다, 문헌의 용례를 바탕으로 대순진리회의 수도에서 일념과 일심이 각각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확인하고, 두 용어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념교의 의미는 명칭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일념교의 한쪽 끝은 식사와 숙박이 이루어지는 신생활관에 닿고, 다른 쪽 끝은 종무원 앞뜰로 연결된다. 또한 다리 아래에는 일반 차량과 사람들이 오가는 통행로가 놓여 있다. 따라서 명칭에 부여된 수도적 의미와 다리가 연결하는 공간, 그 위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통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종교건축에서는 종교공동체의 세계관과 수행 원리가 건축물의 명칭과 배치, 동선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5] 예컨대 도교 궁관(宮觀)의 도로 체계는 인체의 경락에, 각 전각은 경락상의 혈자리에 비유되며, 궁관 내부의 기는 도로를 따라 흐르는 것으로 설명된다.[6] 유교적 예와 수양의 원리가 반영된 조선 궁궐에서도 건축물의 명칭과 배치에 일정한 의미가 담겨 있다. 경복궁의 강녕전(康寧殿)은 국왕이 몸과 마음을

『대순회보』 32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p.5; 고남식, 「人間을 道와 合一시켜주는 힘이 一心」, 『대순회보』 33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p.5; 박팽년, 「報恩은 誠之又誠에서」, 『대순회보』 34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p.4; 장병국, 「믿음은 실행에서 열려져」, 『대순회보』 38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3), p.6.

3) 『전경』, 교법 2장 4절, 교법 2장 5절, 교법 2장 13절, 교법 3장 20절, 권지 1장 18절, 예시 50절.

4) 『대순지침』, p.50; 『대순진리회요람』, p.16, p.18.

5) 대순진리회의 예술적·물질적 차원에서 도장 건축과 조형물, 그림 등이 교리와 세계관을 표상한다는 논의로는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세계관: 니니안 스마트의 종교 연구 접근법을 중심으로」, 『대순종학』 9 (2025), pp.103-106 참조.

6) 王鲁辛, 「道教宫观营建的"气论"观」, 『宗教学研究』 4 (2024), p.76.

바르게 수양해야 함을, 사정전(思政殿)은 그러한 수양을 바탕으로 정사를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근정전(勤政殿)은 결정된 정사를 부지런히 행해야 함을 뜻한다. 각 전각의 명칭과 배치는 군주의 내면적 수양이 올바른 판단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유교적 원리를 보여준다.[7] 이처럼 건축물의 명칭과 배치, 동선은 종교적 세계관과 수행·수양의 원리를 공간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종교건축의 의미는 건축물의 기능에만 머물지 않고, 명칭에 부여된 의미와 배치·동선이 맺는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관점은 중심 건축물이나 의례 장소뿐만 아니라, 고유한 명칭이 부여되고 반복적으로 통과되는 이동 공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종교건축과 종교공간에 관한 연구는 성지의 형성과 도장 전체의 공간적 성격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차선근(2009, 2021)은 대순진리회의 성지가 도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다루었다.[8] 허남진(2014)은 대순진리회의 성지를 신앙공간과 순례지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보고, 도장과 영대의 성스러움 및 순례의 종교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민병삼(2016)은 여주본부도장의 입지와 공간 구성을 지상신선 세계관과 풍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신영대(2019, 2020)는 형기론적 관점에서 여주본부도장의 지맥과 풍수적 국세, 금강산토성수련도장의 풍수적 입지와 주변 자연환경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였다. 김진영(2020)은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대순진리회 도장의 종교적 상징과 이미지, 공간구조에 내포된 의미와 가치를 검토하였다. 박상규(2022)는 무극도장의 신전 구조와 의례를 종교적 상징체계로 보고, 이를 통해 무극도의 천계관을 분석하였다.[9]

---

7) 장지연, 「태조대 경복궁 전각명에 담긴 의미와 사상적 지향」, 『한국문화』 39 (2007), pp.74-86; 박진훈, 「경복궁에 투영된 조선초기의 이상적 국정운영체계」, 『역사와 실학』 60 (2016), pp.38-46.

8) 차선근, 「대순진리회 성지의 특징과 의미」, 『동아시아종교문화연구』 1 (2009), pp.197-220; Seon-Keun Cha, "Is Sacred Site Discovered? Or Created?: A Case Study of Daesoon Jinrihoe," in David W. Kim, ed., *Sacred Sites and Sacred Stories Across Cultures: Transmission of Oral Tradition, Myth, and Religiosity*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2021), pp.327-354.

한편 도장 내부의 개별 건축물과 공간 명칭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차선근은 내정(內庭)이라는 명칭의 문헌적 출처와 교리적 맥락을 밝혔으며, 물질종교의 관점에서 건축물로서의 영대(靈臺)와 비물질적 영대 관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진법주와 『여조전서(呂祖全書)』를 통해 영대와 내정의 의미를 조명하였다.[10]

일심의 의미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념교의 명칭을 해석하는 데에도 참고가 된다. 차선근(2014)은 일심을 비롯한 수행 관련 용어와 개념이 동양 종교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대순진리회의 개념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를 갖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광주(2015)는 대순사상에서 무자기를 바탕으로 심령을 통일하여 일심이 되고자 한다고 보고, 일심을 심체 고유의 기능과 작용이 온전히 발휘되는 경지로 해석하였다. 고남식(2023)은 일심을 어떠한 목적을 향해 한결같이 지속되는 정신작용으로 파악하고, 신앙과 일상에서 목표를 이루는 힘 및 복록의 근원과 연결하였다.[11]

현재까지 검토한 선행연구 가운데 일념교 자체를 독립적인 대상으로 삼아 명칭과 공간 구조의 관계를 함께 분석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민병삼(2016)이 여주본부도장의 진입 동선을 설명하면서 포정

---

9) 허남진, 「대순진리회의 성지와 순례의 의미」, 『대순사상논총』 22 (2014), pp.539-565; 민병삼, 「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 세계관 연구: 여주본부도장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7 (2016), pp.35-77; 신영대, 「풍수지리로 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대순사상논총』 33 (2019), pp.91-145; 신영대, 「풍수 형기론(形氣論)으로 본 대순진리회 금강산토성수련도장」, 『대순사상논총』 36 (2020), pp.35-78; 김진영, 「세계유산 관점에서의 대순진리회 도장의 가치」, 『대순사상논총』 35 (2020), pp.393-426; 박상규, 「대순 신앙의 천계(天界) 관념: 무극도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82-2 (2022), pp.175-207.

10) 차선근, 「대순진리회 도장 건축물 내정(內庭)에 대한 연구: 내정의 문헌 출처와 그 맥락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37 (2021), pp.1-52; 차선근, 「물질종교 관점에서 본 영대: 물질 영대와 비물질 영대 가로지르기」, 『대순사상논총』 44 (2023), pp.53-96; 차선근, 「진법주와 『여조전서(呂祖全書)』로 살펴본 영대와 내정」, 『대순종학』 4 (2023), pp.97-124.

11) 차선근, 「대순진리회 수행 연구의 경향과 과제」, 『대순사상논총』 24-1 (2014), pp.339-340; 이광주, 「주자학과 대순사상의 수양론 비교 연구」, 『대순사상논총』 24-2 (2015), pp.242-243; 고남식, 「원효(元曉)의 화쟁(和諍)사상과 강증산(姜甑山)의 해원상생(解冤相生)사상 비교: 화(和), 일심(一心), 해(解)와 관련하여」, 『동아시아고대학』 70 (2023), pp.176-179.

문과 일념교를 속세와 성스러운 공간을 가르는 입구이자 차안과 피안의 구분이 시작되는 곳으로 해석한 사례는 있다.[12] 다만 이것은 여주본부도장 전체의 입지와 공간 구성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 일념교 자체의 위치와 연결 관계를 중심으로 한 분석과는 범위가 다르다. 일념교는 도장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진입부가 아니라, 신생활관과 종무원 앞뜰을 잇는 도장 내부의 다리이다. 실제 위치와 연결 관계를 고려하면, 일념교를 속세와 성역의 진입 경계로 규정한 해석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념교의 명칭과 공간 구조를 함께 고찰하여, 수도인이 반복해서 건너는 이동 공간이 대순진리회의 수도 이해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주요 자료는 여주본부도장 준공 당시 일념교의 위치와 의미를 설명한『대순회보』7호이다. 해당 기사는 일념교가 조성된 시기에 그 위치와 명칭의 의미를 함께 기록한 종단의 초기 공식 자료로서, 일념교에 부여된 수도적 의미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아울러『대순지침』과『대순진리회요람』의 일념 용례,『태극도통감』[13]의 '념(念)' 관련 표현,『전경』의 일심 용례를 활용하며, 일념교의 공식 설명에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전경』의 일심・한마음 용례도 함께 검토한다. 문헌에 나타난 일념과 일심의 용례를 비교하고, 일념교의 위치와 연결 대상에 관한 문헌 자료와 현장 관찰을 바탕으로 명칭과 공간 구조를 분석한다. 현장 관찰은 연구자가 여주본부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념교의 위치와 연결 대상, 주변 공간의 이용 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와 분석 방향에 따라, Ⅱ장에서는 종교공간의 장소화와 상징 해석, 다리와 통행의 공간적 성격을 토대로 일념교 분석의 종교

12) 민병삼, 앞의 글, p.63.

13)『태극도통감』은 1956년 태극도에서 발행된 교단 안내서로서, 무극도・태극도・대순진리회로 이어지는 종단 전통에서 공식 출판된 최초의 문헌이며 경전적 성격을 지닌 대순사상의 1차 자료이다. 차선근,「대순사상의 정체성과 그 연구자료의 문제」,『대순종학』1 (2021), pp.36-37; 박상규・박선민・이호열,「『태극도통감』수서본(手書本) 고증: 팔괘도와 해설을 중심으로」,『대순종학』7 (2024), pp.1-3.

공간론적 관점을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대순진리회 관련 문헌에 나타난 일념의 용례를 『전경』의 일심 용례와 비교하여 두 용어의 의미 차이와 연관성을 검토한다. Ⅳ장에서는 일념교가 연결하는 공간과 강천로 위에서 형성되는 수직적 구조를 분석하고, 명칭에 담긴 수도적 의미와 공간 구조의 관계를 논의한다.

Ⅱ. 일념교 분석의 종교공간론적 관점

1. 종교공간의 장소화와 상징 해석

종교공간의 의미는 물리적 경계나 건축 형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하나의 공간은 고유한 명칭으로 불리고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되며, 그곳에 관한 기억과 해석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14] 천진암 성역화에 관한 연구에서도 특정 공간이 이름 짓기와 서사의 구축, 의례의 형성 등을 통해 성지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형성된 공간이 공동체가 선별한 기억과 현재의 해석을 전달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15] 국내 연구에서도 성스러운 장소를 인간의 경험과 행위 및 사회문화적 질서가 개입하여 형성되고 해석되는 장소로 파악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16] 종교공간은 이처럼 물리적 조건에 인간의 경험과

14) Aaron French and Katharina Waldner, “Introduction: Modernity, Space and the Sacred,” in Aaron French and Katharina Waldner, eds., *Modernity and the Construction of Sacred Space* (Berlin/Boston: De Gruyter Oldenbourg, 2024), pp.1-14; Ursula Rao, “Sacred Space,” in Hilary Callan, ed.,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vol. 10 (Hoboken: Wiley Blackwell, 2018), pp.5334-5340.

15) 최연정・이유나, 「성지 만들기 : 한국 가톨릭의 천진암 성역화를 중심으로」, 『종교와 사회』 12-1 (2024), pp.189-216.

16) 최화선, 「장소에 관한 새로운 종교학적 접근의 모색」, 『종교연구』 34 (2004), pp.343-347, p.358.

해석, 실천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조너선 스미스(Jonathan Z. Smith)는 의례와 장소의 관계를 논하면서, 의례를 '주의(attention)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장소가 그 안의 사물과 행위에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킨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장소는 그 안의 사물과 행위를 일상적인 맥락과는 다르게 인식하게 하고, 특별한 의미를 획득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17] 킴 노트(Kim Knott) 역시 공간을 사람과 사물, 장소와 상징 사이의 관계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구성으로 파악한다. 장소는 다른 공간과 단절된 고정적 실체가 아니라 여러 관계가 특정한 위치에서 만나는 결과이며, 반복되는 공간적 실천 속에서 형성되고 재생산된다.[18] 공간이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은 불교 성지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보리수와 4대 성지는 과거의 종교적 사건을 기념하는 정적인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상・예경・순례와 같은 수행과 공동체의 반복적 참여를 통해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공간으로 이해된다.[19] 이 사례는 종교공간의 의미가 장소 자체에 고정되어 있기보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실천과 지속적인 참여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종교건축은 종교공동체의 신앙과 실천을 위해 조성되거나 종교적 기능을 부여받아 사용되는 건축물을 가리킨다. 종교공간은 건축물이나 장소의 명칭・배치・동선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과 반복적 이용이 결합하면서 종교적 의미가 형성되고 경험되는 공간을 뜻한다. 물질종교 연구에서도 종교적 사물의 의미는 물질 자체에만 고정되어 있기보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수용하는지, 그리고 사람・사물・장소・실천이 맺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20] 일념교

17) Jonathan Z. Smith, *To Take Place: Toward Theory in Ritu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p.103-104; 조너선 스미스, 『자리 잡기 : 의례 내의 이론을 찾아서』, 방원일 옮김 (서울: 이학사, 2009), p.212.

18) Kim Knott, *The Location of Religion: A Spatial Analysis* (London and Oakville: Equinox Publishing, 2005), pp.20-21, pp.29-33.

19) 백귀순, 「불교 경전의 공간인식과 종교지리학적 원형 : 보리수와 4대 성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69 (2025), pp.210-211.

는 물리적으로 조성된 다리라는 점에서는 종교건축이며, 그 명칭과 배치, 통행에 관한 해설과 실제 이용이 결합한다는 점에서는 종교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공간의 명칭과 배치, 동선은 서로 분리된 요소가 아니다. 명칭은 공간의 특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공간을 인식하고 구분하며 그 공간에 관한 개념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한다.[21] 또한 명칭은 공간의 성격과 의미를 해석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배치는 개별 공간을 다른 공간과의 관계 속에 놓는다. 동선은 이러한 공간 관계를 공간적 이동을 통해 경험하게 한다. 따라서 종교공간의 의미는 명칭이나 위치를 개별적으로 볼 때보다, 명칭과 배치, 동선이 이루는 관계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일념교의 명칭과 공간 구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행을 함께 분석하는 데에는 빅터 터너(Victor Turner)의 상징론이 유용하다. 터너는 현장에서 관찰되는 상징을 물질적 대상에만 한정하지 않고, 행위, 관계, 사건, 동작 및 의례 상황의 공간적 단위까지 포함하였다.[22] 또한 상징의 의미를 해석적 차원(exegetical meaning), 작용적 차원(operational meaning), 위치적 차원(positional meaning)으로 구분하였다. 해석적 차원은 공동체 구성원이 상징에 대해 제시하는 설명과 해석이고, 작용적 차원은 상징의 실제 사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 및 관계이며, 위치적 차원은 의례 전체에서 하나의 상징이 다른 상징들과 맺는 관계에 따라 드러나는 의미이다.[23] 본 연구에서는 이 세 차원을 기준으로 『대순회보』에 제시된 일념교의 명칭 설명, 수도인의 통행, 주변 공간과의 관계를 함께 분석한다.

---

20) Birgit Meyer, David Morgan, Crispin Paine, and S. Brent Plate, “The Origin and Mission of Material Religion,” *Religion* 40:3 (2010), p.209.

21) Peter Jordan, “Landscape and Names: The Role of Geographical Names in Space and Space-Related Identity Building,” *Folia Geographica* 16 (2010), p.48 참조.

22) 빅터 터너, 『상징의 숲 1』, 장용규 옮김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20), pp.42-43.

23) 같은 책, pp.110-112. 터너의 원어는 exegetical meaning, operational meaning, positional meaning이다.

2. 다리와 통행의 공간적 성격

일념교의 의미를 이루는 또 하나의 요소는 다리라는 공간 형식과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통행이다. 짐멜(Georg Simmel)은 사람들이 두 지점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움직임이 길이라는 지속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다리는 서로 떨어진 두 지점을 실제로 연결하여 그 관계를 가시적으로 드러낸다고 보았다.[24] 이러한 연결은 두 지점 사이의 간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로를 따라 두 공간 사이를 오갈 수 있게 한다.

종교공간에서 통로는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물리적 길에만 머물지 않는다. 전통공간의 진입 과정에서 문・다리・계단과 같은 요소는 서로 다른 공간을 구분하면서도 연결하며, 이를 통과할 때 분절과 연계, 막힘과 트임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공간의 연속성과 방향을 지각하고, 서로 다른 공간의 관계를 몸으로 경험한다.[25] 라더마허(Martin Radermacher)는 구체적인 건축공간을 종교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배경으로 보지 않고, 공간이 특정한 움직임과 감각적 지각을 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하며 사람의 주의를 일정한 대상과 방향으로 이끄는 데 관여한다고 보았다.[26]

한편 토마스 트위드(Thomas A. Tweed)는 종교를 사람들이 세계 안에서 머물 자리를 만들고 경계를 건너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27]

---

24) Georg Simmel, "The Bridge and the Door," trans. Michael Kaern, *Qualitative Sociology* 17:4 (1994), pp.407-408.

25) 김미숙, 「전통공간에서 나타나는 진입에 의한 전이 공간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6-1 (2005), pp.231-233 참조.

26) Martin Radermacher, "Space, Religion, and Bodies: Aspects of Concrete Emplacements of Religious Practice," *Journal of Religion in Europe* 9:4 (2016), pp.305-306, pp.309-310.

27) Thomas A. Tweed, *Crossing and Dwelling: A Theory of Relig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p.54, 재인용: Caroline Starkey and Matt Coward-Gibbs, "Introduction: Translating Buddhism and the Politics of Ownership: Between Asia(s) and West(s)," *Journal of Global Buddhism* 19 (2018), p.39.

이 관점에서 종교공간은 정지된 성소나 중심 건축물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중심 공간으로 향하게 하거나 서로 다른 공간을 오가게 하는 문과 길, 다리도 종교공간을 경험하는 과정의 일부가 된다. 노트는 공간적 실천을 사람들이 공간을 형성하고 사용하며 인식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여기에는 반복되는 몸짓과 일상적인 이동, 일정한 경로를 따라 오가는 행위가 포함된다. 공간적 실천은 장소를 형성하고 재생산하지만, 그 자체가 본래부터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은 아니다. 동일한 이동이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맥락과 행위자와 공동체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28] 따라서 일념교의 통행이 지니는 수도적 의미도 이동 자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일념교에 관한 해설과 관련 문헌, 다리가 연결하는 공간, 실제 이용을 종합하여 해석해야 한다.

Ⅲ. ‘일념교’ 명칭의 의미

1. 대순진리회 문헌에 나타난 ‘일념’

대순진리회 관련 문헌에서 ‘일념’은 경천과 수도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확인된다. 『대순지침』에서는 경천 항목에서 ‘경건일념’을 제시하고, 『대순진리회요람』에서는 사강령의 수도와 별도의 수도 항목에서 ‘일념’을 사용한다. 또한 『태극도통감』과 『대순진리회요람』에 제시된 사강령의 수도 설명은 문장 구조와 내용에서 직접 대응하여, ‘일념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라는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그리고 『전경』의 ‘두 마음’ 관련 구절과 『대순진리회요람』의

28) Kim Knott, 앞의 책, pp.39-43.

경천 및 ‘마음을 속이지 말라’의 항목도 일념교의 명칭에 부여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참고가 된다. 관련 문헌에 나타난 주요 용례와 내용을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일념’에 관한 주요 문헌 표현

문헌	항목	표현	비고
『대순회보』 7호	일념교 명칭 설명	“수도를 함에 있어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직접 설명
『대순지침』	경천	“구천상제님의 대순진리의 봉교신앙(奉敎信仰)에 사려(邪慮) 없는 경건일념(敬虔一念)을 다하는 마음”	직접 용례
『대순진리회요람』	신조 사강령-수도	“마음과 몸을 침착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을 목적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을 다하는 일념(一念)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至誠)으로 봉축(奉祝)하여야 한다”	직접 용례
『대순진리회요람』	수도	“심신(心身)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여”, “대월(對越) 상제(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精神)을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을 목적(目的)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하는 일념(一念)을 끊임없이 생각”, “지성(至誠)으로 소정(所定)의 주문(呪文)을 봉송(奉誦)”	직접 용례
『태극도통감』	修道	“心身을 沈潛推密하야”, “對越上帝의 永侍의 精神을 聚會하야 丹田에 磨鍊하며”, “靈通의 統一을 目的하야”, “敬之又敬하며 誠之又誠하야 念念自在하며 刻刻念念하야 至誠奉祝할 것”	‘수도’ 항목 대응 구절
『태극도통감』	취지서	“刻刻念念에 念念以誠하며, 時時律律에 律律以敬하며, 地地踏踏에 踏踏以信…”	‘念’ 용례
『대순진리회요람』	신조 사강령-경천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 깨나 잊지 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속에 새겨 두고”,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을 다하는 마음”	‘경천’ 설명
『전경』	행록 4장 40절	“이 뒤로는 우산을 들지 말라. 의뢰심과 두 마음을 품으면 신명의 음호를 받지 못하나니라”	‘두 마음’ 관련 구절

『전경』	권지 1장 19절	“한 몸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몸이 찢어지리니 주의하라”	‘두 마음’ 관련 구절
『대순진리회요람』	훈회: 마음을 속이지 말라	“사심(私心)은 물욕(物慾)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이다”, “사심(私心)을 버리고 양심(良心)인 천성(天性)을 되찾기에 전념하라”	훈회
『대순진리회요람』	수칙	무자기는 도인의 옥조니, 양심을 속임과 혹세무민하는 언행과 비리괴려를 엄금함	수칙

문헌에 나타난 일념의 의미는 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일념은 상제와 대순진리를 향한 신앙적 지향을 갖는다. 『대순지침』에서는 “도인들이 구천상제님의 대순진리의 봉교신앙(奉敎信仰)에 사려(邪慮) 없는 경건일념(敬虔一念)을 다하는 마음이 경천이다”라고 규정한다.[29]

『대순진리회요람』에서는 경천을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 깨나 잊지 말고”,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속에 새겨 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강조한다.[30] 이 설명은 『대순지침』의 ‘경건일념’이 상제를 가까이 모신다는 자각 속에서 공경과 정성을 다하는 태도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일념은 사려(邪慮)와 두 마음을 경계하며 마음을 한 방향으로 세우는 태도와 관련된다. 『대순지침』에서는 일념을 “사려 없는 경건일념”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사려는 바르지 못하고 사사로운 생각을 가리킨다. 『전경』에서는 두 마음에 대하여 “의뢰심과 두 마음을 품으면 신명의 음호를 받지 못하나니라”고 하였고, “한 몸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몸이 찢어지리니 주의하라”고 하였다.[31]

『대순진리회요람』의 「훈회」에서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항목은 사심을 “물욕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으로 설명하고, “사심을 버리

29) 『대순지침』, p.50.
30) 『대순진리회요람』, p.15.
31) 『전경』, 행록 4장 40절, 권지 1장 19절.

고 양심인 천성을 되찾기"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32] 또한 「수칙」에서는 "무자기는 도인의 옥조"라고 하여 양심을 속이는 사심을 경계한다.[33]

사려·두 마음·사심은 서로 구별되는 표현이지만, 관련 문헌에서 경계하거나 버려야 할 마음의 양상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일념의 의미를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은 사려와 사심을 경계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서 상제와 대순진리를 향해 마음을 세우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사심을 버리고 양심인 천성을 되찾도록 한 설명은 일념과 무자기(無自欺)가 서로 관련됨을 뒷받침한다.

셋째, 일념은 수도인이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생각하여 새롭게 세우는 실천이다. 『대순진리회요람』은 사강령의 수도 설명에서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으로 봉축하여야 한다"고 한다. 별도로 제시된 수도 항목에서도 "공경하고 정성하는 일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으로 소정의 주문을 봉송"한다고 설명한다.[34]

『태극도통감』과 『대순진리회요람』의 수도 설명을 비교하면, 문장 구조와 내용에서 구체적인 대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35] 『태극도통감』에서는 "敬之又敬하며 誠之又誠하야 念念自在하며 刻刻念念하야 至誠奉祝할 것"이라고 한다.[36] 이 가운데 '敬之又敬하며 誠之又誠하야'는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에, '念念自在하며'는 '일념을 스스로 생각하여'에, '刻刻念念하야'는 '끊임없이 잊지 않고'에 각각 대응한다.

---

32) 『대순진리회요람』, pp.18-19.

33) 같은 책, p.21.

34) 같은 책, p.16, p.18.

35) 『대순진리회요람』의 「신조」를 비롯한 주요 항목이 1956년 『태극도통감』에 기반하고 있음은 최치봉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최치봉, 「『옥추보경』 집주본의 한국내 변용과 대순진리회와의 상관성 연구」, 『대순사상논총』 53 (2025), p.145.

36) 『태극도통감』, p.11.

여기서 『태극도통감』의 '念念'은 『대순진리회요람』의 '일념'에 대응하는 선행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태극도통감』 취지서는 '念念'을 다음과 같은 병렬 구조 속에 제시한다.

> 刻刻念念에 念念以誠하며
> 時時律律에 律律以敬하며
> 地地踏踏에 踏踏以信하야[37]

이 구절은 동일한 형식의 병렬 구조를 이룬다. '刻刻·時時·地地'는 각각 순간·때·장소를 나타내며, '念念·律律·踏踏'은 뒤이어 '念念以誠·律律以敬·踏踏以信'의 형태로 반복되어 각각 성(誠)·경(敬)·신(信)과 연결된다. 따라서 '刻刻念念'의 '刻刻'은 매 순간을, '念念'은 그때마다 마음에 두어야 할 념을 뜻하며, '念念以誠'은 각각의 념에 정성을 다해야 함을 나타낸다.

'念念自在'의 '自在'도 일념의 의미를 밝히는 중요한 표현이다. '念念自在'가 『대순진리회요람』에서 '일념을 스스로 생각하여'로 풀이된 점을 고려하면, 이 문맥의 '自在'는 각각의 념을 수도인 자신이 스스로 주재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念念自在'는 일념을 스스로 생각하고 세우는 측면을, '刻刻念念'은 그 일념을 매 순간 마음에 두고 잊지 않는 측면을 나타낸다.

문헌의 용례를 함께 살펴보면, 일념은 사려를 경계하고 사심을 버리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상제와 대순진리를 향한 한 마음을 매 순간 스스로 생각하여 새롭게 세우는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일념의 '현재성'과 '방향성'은 앞서 살펴본 관련 용례를 종합하여 정리한 의미상의 특징이다. 이러한 해석은 『대순회보』 7호에 제시된 일념교의 명칭 설명과도 부합한다.

---

37) 같은 책, pp.3-4.

2. 일념과 일심의 관계

일념교의 명칭 설명에서 '한 마음'은 앞서 확인한 일념의 방향성과 관련된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전경』에서는 '일념'의 직접 용례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일심'과 이에 대응하는 '한마음'은 여러 구절에서 직접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전경』에 나타난 '일심'과 '한마음'의 직접 용례는 <표 2>와 같다.

<표 2> 『전경』에 나타난 일심·한마음의 직접 용례

구절	직접 표현	관련 원문	의미
교법 2장 4절	일심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 없이 베풀어 주리라."	복록을 받음
교법 2장 5절	한마음	"한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범사의 성취
교법 2장 13절	일심	"내가 비록 서촉에 있을지라도 일심을 가지는 자에게 빠짐없이 찾으리라."	덕화를 입음
교법 3장 20절	일심	"일심의 힘이 크니라. …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 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	불가능을 이룸
권지 1장 18절	일심	"던지는 법을 일정하게 하면 그렇게 되나니 이것도 또한 일심이라."	뜻한 결과를 얻음
예시 50절	일심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	후천선경으로 나아감

일심은 먼저 성취와 결부되어 제시된다. 관련 구절에서는 범사의 성취, 불가능해 보이는 일의 실현, 일정한 방식에 따른 결과의 획득이 모두 일심과 연결된다. 특히 "일심의 힘이 크니라. …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 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38]

는 구절은 행위의 크기와 결과의 크기 사이의 통상적 비례를 넘어서는 일심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복록과 덕화에 관한 구절에서는 일심과 상제의 베풂 및 찾음 사이의 관계가 두드러진다. 『전경』에서는 "진심견수복선래(眞心堅守福先來)"라고 하여 진실한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과 복이 이르는 것을 함께 제시한다.[39] 상제는 인간의 복록을 맡고 있으나 일심을 가진 자가 없어 맡겨 줄 곳이 없다고 하였으며,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 없이 베풀어 주겠다고 하였고,[40] 자신이 비록 서촉에 있을지라도 일심을 가지는 자를 빠짐없이 찾을 것이라 하였다.[41] 이처럼 "지체 없이"와 "빠짐없이"라는 표현에서는 시간의 지체나 공간의 거리가 장애로 작용하지 않으며, 일심의 유무가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된다. 두 구절 모두 일심을 가진 자가 상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제가 일심을 가진 자에게 베풀거나 그를 찾는 방향으로 서술된다는 점도 중요하다.[42]

후천선경에 관한 서사에서는 일심이 그 여정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으로 다루어진다. 『전경』에서는 상제가 백지에 24방위를 돌려 쓰고 복판에 혈식천추 도덕군자를 쓴 것을 '남조선 뱃길'이라 명명하며, 혈식천추 도덕군자가 배를 몰고 전명숙이 도사공이 된다고 한다.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43]는 표현에서 '이 배'는 남조선 뱃길을 따라 후천선경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44] 여기서 군자신이 천추 혈식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는 까닭이 '모두 일심에 있다'고 하므로, 일심은 배를 모는

38) 『전경』, 교법 3장 20절.
39) 같은 책, 교법 2장 3절.
40) 같은 책, 교법 2장 4절.
41) 같은 책, 교법 2장 13절.
42) 김인수, 「일심(一心)과 두 마음」, 『대순회보』 157 (2014), pp.23-27 참조.
43) 『전경』, 예시 50절.
44) 손영배, 「일심의 실천적 지향」, 『대순회보』 284 (2024), pp.29-33 참조.

자의 자격 근거이자 배에 오르는 자의 자격 요건, 곧 이 여정에 참여하는 이들을 관통하는 단일한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도전(都典) 박우당(朴牛堂, 1917~1996, 이하 우당으로 표기함)은 도통을 신명이 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신명은 바르게 닦은 사람에게 응하며, 바르게 닦기 위해서는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 일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45]

일심은 개인적 성취와 복록·덕화에서 후천선경에 이르는 궁극적 수도의 성취까지 요구되는 핵심 조건으로 나타난다.[46] 일념과 일심의 차이는 불교와 성리학, 조선 후기 민간도교의 관련 용례를 함께 살필 때 한층 구체화된다. 다만 각 전통의 개념은 성립 배경과 의미 체계가 서로 다르므로, 동일성을 전제하지 않고 유사성과 차이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대조한다.[47] 천태학의 일념삼천설에서 일념(一念)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을 가리키며, 그 일념에 삼천의 법이 갖추어져 있다고 설명된다.[48] 대순진리회의 일념과 교리적 의미는 다르지만, 한순간의 마음에 초점을 둔다는 점은 대순진리회 일념에서 두드러지는 현재성과 연결하여 볼 수 있다.

한편 성리학의 경(敬) 공부에서 주일무적(主一無適)은 마음을 하나에 주재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 않게 하는 공부를 뜻한다.[49] '주

---

45) 「도전님 훈시 : 해원상생으로 혁신하여 척을 짓지 말자」, 『대순회보』 35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3), p.2, "도통은 신명이 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은 바르게 닦은 사람에게 응하게 됩니다. 바르게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유리알과 같이 맑고 깨끗하게 닦아 일심(一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6) 고남식, 「원효(元曉)의 화쟁(和諍)사상과 강증산(姜甑山)의 해원상생(解冤相生)사상 비교 : 화(和), 일심(一心), 해(解)와 관련하여」, pp.176-179 참조.

47) 조너선 스미스, 『자리 잡기 : 의례 내의 이론을 찾아서』, p.45; 차선근, 「스미스와 스미스, 종교학의 대장장이들 : '종교'에서 '종교들'로」, 『종교연구』 82-2 (2022), pp.92-94.

48) 정혜정, 「천태학(天台學)의 세계관과 지관(止觀)의 수행」, 『종교교육학연구』 20 (2005), p.203, pp.210-211; 임상목, 「천태의 一心 수용과 전개」, 『동아시아불교문화』 67 (2025), pp.122-123.

49) 안종수, 「유교의 명상법」, 『철학논총』 91-1 (2018), pp.190-191; 김철호, 「도덕적 명상으로서의 경(敬)」, 『동양철학연구』 81 (2015), pp.148-151.

일(主一)'은 현재 마주한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념과 가깝고, '무적(無適)'은 그렇게 세운 마음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거나 흩어지지 않는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심과 연결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일무적에서는 마음을 하나로 세우는 것과 그 마음을 지속하는 두 측면이 함께 나타난다.

조선 후기 무상단(無相壇)의 강필 문헌인 「무상단어록」에서도 일념과 관련된 표현이 확인된다. 이 문헌은 "一念觀心"을 통해 일념으로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는 공부를 제시하고, "現前一念"을 바로 이 순간 앞에 나타난 생각으로 풀이하면서, 행주좌와(行住坐臥) 속에서 이를 계속 알아차리는 수행을 설명한다. 또한 "一念切處"에서는 현묘한 도의 작용이 일념에 있으며, 그 일념이 간절한 곳에서 서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50] 여기서의 일념은 현재의 마음을 살피고 도를 향해 집중한다는 점에서는 현재성과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행주좌와 속에서 현전일념을 계속 살핀다는 설명은 한순간의 마음에 대한 주의가 일상에서도 지속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상의 비교는 일념의 현재성과 방향성, 일심의 지속성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 두 개념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의 과정에서 현재의 마음을 하나로 세우는 실천과 그 마음이 한결같이 이어지는 상태로 연결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은 수도인이 지향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나타내고, "나아가야 된다"는 표현은 그 상태를 향해 현재의 마음을 매 순간 하나로 세우는 실천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일념교의 '일념'은 한결같은 일심을 지향하며 현재의 마음을 하나로 세우는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표 3>에서 항목별로 구분하였다.

---

50) 김지현・정재상, 「무상단어록(無相壇語錄) 역주」, 『도교문화연구』 60 (2024), p.134, pp.146-147, pp.149-150, p.158.

<표 3> 일념(一念)과 일심(一心)의 차이와 관계

구분	일념(一念)	일심(一心)
의미	상제와 대순진리를 향해 현재의 마음을 하나의 방향으로 세우는 의지적 실천	하나의 방향으로 세운 마음이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이어져 수도의 성취에 이르는 상태
핵심 표현	“사려 없는 경건일념”, “일념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念念自在”, “刻刻念念”, “念念以誠”	“일심을 가진 자”, “한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일심의 힘이 크니라”, “眞心堅守福先來”
시간성	매 순간 현재의 마음을 스스로 생각하여 새롭게 세움	하나의 방향으로 세운 마음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흔들림 없이 이어짐
경계・대립 요소	사려(邪慮)・두 마음・사심(私心)	마음의 흔들림・한결같지 못함
상제와의 관계	수도자가 상제와 대순진리를 향해 마음을 세움	상제가 일심을 가진 자를 찾아 복록과 덕화를 베풂
일념교와의 관계	“나아가야 된다”—현재의 마음을 매 순간 하나의 방향으로 세우는 실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수도인이 지향해야 할 한결같은 마음의 상태

장소가 그 안의 사물과 행위에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킨다는 조너선 스미스의 관점에서 보면, ‘일념교’라는 명칭은 다리를 건너는 수도인의 주의를 자신의 마음가짐으로 향하게 하는 언어적 장치로 기능한다.[51] 이와 같은 명칭의 기능을 고려하면, 일념교는 대순진리회의 수도 이해를 드러내는 종교공간적 표지(標識)라고 할 수 있다.

Ⅳ. 일념교의 공간 구조

일념교의 종교공간적 의미는 명칭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 다리가 무엇을 연결하고 어떤 공간 위를 지나는지에 따라 ‘일념’의 의미도 공간

51) Jonathan Z. Smith, *To Take Place: Toward Theory in Ritual*, pp.103-104; 조너선 스미스, 『자리 잡기 : 의례 내의 이론을 찾아서』, p.212.

적으로 구체화된다. 일념교는 1987년 완공된 아치형 다리로, 길이 44m, 폭 4m, 높이 5.5m의 규모이며, 양쪽 입구의 사자상과 연꽃 모양의 엄지기둥들이 난간을 이루고 있다.[52]



<그림 2> 일념교에 새겨진 4월 28일

또한 일념교에는 '대순 117년 정묘년 4월 28일'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다. 대순진리회에서 4월 28일은 도주(道主) 조정산(趙鼎山, 1895~1958)의 봉천명(奉天命)이 있었던 날로서 50년 공부가 시작된 날이다. 우당은 "도주님께서 만주로 가신 것이 기유년(1909년) 4월 28일인데, 4는 춘하추동 사계절, 28은 28수를 의미한다"고 하였다.[53] 이러한 의미를 지닌 4월 28일이 일념교에 새겨져 있다는 점은 일념교가 도(道)와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념교는 수평적으로 신생활관과 종무원 일대를 연결하고, 수직적으로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 위를 지난다. 이러한 공간 구조는 신생활관의 생활 공간과 종무원 앞뜰을 거쳐 수도의례 공간으로 이어지는 영역 사이의 수평적 연결, 수도인의 이동과 세속적 통행이 위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수직적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52) 「새로운 수도장이 여주에 완공되다」, 『대순회보』 7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7), p.3; 교무부, 「일념교(一念橋)」, 『대순회보』 95 (2009), p.76.

53)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도주님의 봉천명(奉天命) 1」, 『대순회보』 173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5), pp.22-26.



<그림 3> 여주본부도장 전경과 일념교의 위치[54]

1. 일상생활과 수도의례의 연결

일념교의 한쪽에는 신생활관이 자리한다. 신생활관은 여주수도장 준공과 함께 세워진 생활 건물로, 당시 1층과 지하실은 행사 때 식당으로, 2층은 방으로, 3층은 집회장으로 사용되었다.[55] 같은 해 여름에는 대진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과 생활예절, 다도, 심성훈련 등을 포함한 생활관 실습이 시행되었다.[56] 이는 신생

54)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홈페이지》, 「도장전경」, '일념교' (http://www.daesoon.org/about/dojang_0102.php, 2026. 7. 15. 검색).
55) 「새로운 수도장이 여주에 완공되다」, 『대순회보』 7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7), p.3.
56) 「생활관 실습 : 대진고교 여학생」, 『대순회보』 7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7), p.4.

활관이 초기부터 숙식뿐만 아니라 생활교육의 공간으로도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현재는 1층과 3층이 식당으로, 2층과 4층이 시학·시법[57] 공부자 및 외수 수강반 등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58]



<그림 4> 일념교와 신생활관

현재 용도를 고려하면, 신생활관은 시학·시법·강식·치성·기도 등의 수도의례에 앞서 수도인이 머물며 준비하는 생활 공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생활 공간'은 종교적 의미가 배제된 세속 공간을 뜻하지 않는다. 도장 내부에서 숙식과 수도의례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기능적 영역을 가리키며, 수도의례 공간과의 구분 역시 성과 속의 구분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5> 일념교와 수도의례 공간

일념교를 건너면 종무원 일대에 이른다. 이 일대에는 대원종과 대순성전 등이 자리하고, 숭도문을 거쳐 정내(庭內)와 영대 방향으로 동선이 이어진다.[59] 종무원 내 수도부는 공부·수강·연수 및 참배·봉심·치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대원종은 평일기도와 주일기도의

57) 시학·시법은 일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방법과 시간에 주문을 송독하는 공부이다. 시학은 강식(降式)을 행하며, 시법은 시학공부를 마친 사람이 참여하되 강식을 거행하지 않는다. 『대순진리회요람』, p.18; 『전경』, 교운 2장 62절.

58)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홈페이지》, 「도장전경」, '신생활관' (http://www.daesoon.org/about/dojang_0102.php, 2026. 7. 15. 검색). 공식 안내에서는 신생활관의 1층과 3층을 식당, 2층과 4층을 공부자 및 외수 수강반 등의 숙소로 소개한다.

59) 정내(庭內)는 숭도문 안쪽의 공간 영역을 가리킨다. 교무부, 「숭도문(崇道門)」, 『대순회보』 103 (2010), p.50.

시간을 알리며, 대순성전은 참배자를 대상으로 교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숭도문 안쪽의 정내와 영대에서는 시학・시법・강식・치성・기도 등 주요 수도의례가 이루어진다.[60]

일념교는 두 영역 사이의 이동 경로로서 그 관계를 공간적 이동을 통해 경험하게 한다. 수도인은 신생활관에서 숙식하며 준비한 뒤 다리를 건너 수도의례 공간으로 향하고, 의례를 마치면 다시 일념교를 거쳐 생활 공간으로 돌아온다. 이 왕복 동선은 수도의례 이전의 준비와 의례 이후의 일상생활을 시간적으로 이어 주며, 한 방향의 이동이 아니라 두 영역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구조를 이룬다. 동일한 이동 공간도 어느 방향으로 통과하는가에 따라 그 공간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사찰의 참도(參道) 공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다리는 본당으로 향할 때와 돌아올 때 서로 다른 유인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61] 이 차이를 일념교의 왕복 동선에 적용하면, 건너는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수도의례 공간으로 향하는 건너감에서는 현재의 마음을 상제와 대순진리를 향해 하나로 세우는 의미가, 생활 공간으로 돌아오는 건너감에서는 수도의례에서 세운 마음을 일상 속에서도 잃지 않도록 되새기는 의미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두 방향의 건너감은 의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상제와 대순진리를 향한 마음을 세우고 이어 간다는 하나의 수도적 지향으로 연결된다.

트위드가 종교를 머묾과 건너감의 결합으로 파악한 관점에서 보면, 신생활관과 수도의례 공간은 각각 머묾의 자리이고 일념교는 그 사이에서 건너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62] '일념교'라는 명칭은 이러한 건너감을 수도의 맥락에서 해석하게 하는 단서가 된다.

---

60) 임정화, 「여주본부도장 수도부」, 『대순회보』 226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9), pp.38-41; 교무부, 「Q&A 게시판, 도장 내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대순회보』 160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4), p.92.

61) 山口満・長善規・伊藤嘉記, 「参道空間における空間構成要素の誘引効果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69-582 (2004), pp.28-30.

62) Thomas A. Tweed, 앞의 책, p.54, 재인용: Caroline Starkey and Matt Coward-Gibbs, 앞의 글, p.39.

2. 세속적 통행 공간 위의 건너감


<그림 6> 일념교와 강천로의 수직적 공간 구조

일념교의 또 다른 공간적 특징은 일반 차량과 사람들이 오가는 강천로 위를 지난다는 데 있다. 강천로는 도장 안의 생활 공간 및 수도의례 공간과 달리 일반인의 통행이 지속되는 공용 도로라는 점에서 세속적 통행 공간으로 볼 수 있다.[63] 일념교의 두 끝은 모두 도장 내부의 영역에 닿아 있지만, 그 연결은 세속적 통행 공간 위에서 이루어진다. 다리 위에서는 수도인이 생활 공간과 수도의례 공간을 오가고, 아래의 강천로에서는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계속된다. 두 이동은 직접 교차하지 않은 채 같은 지점의 서로 다른 높이에서 이루어져, 수도인의 이동과 세속적 통행이 수직적으로 병존(竝存)한다.

'나아가야 된다'가 수도인이 지녀야 할 마음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건너감'은 분리된 두 지점 사이를 통과하는 공간적 행위이다. 짐멜의 논의에서 다리는 서로 떨어진 두 지점을 연결하여 그 관계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형식이다.[64] 일념교에서도 수도인은 다리의 동선을 따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건너감은 분리와 연결을 함께 전제한다.

일념교의 수직적 구조는 불국사의 청운교·백운교와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해진다. 불국사의 청운교·백운교는 석단 아래의 사바세계에서 위의 연화장세계로 진입하는 상승의 통로로 해석되며, 서

63)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강천로」 (https://www.juso.go.kr, 2026. 7. 4. 검색).
64) Georg Simmel, 앞의 글, pp.407-408.

로 다른 종교적 세계를 구분하면서 연결하는 진입 장치로 볼 수 있다.[65] 일념교에 대해서도 포정문과 함께 속세와 성스러운 공간의 구분이 시작되는 진입 지점으로 해석한 연구가 있다.[66] 그러나 실제 위치와 연결 관계를 보면, 일념교의 두 끝은 모두 도장 내부의 공간에 닿아 있고 그 아래로 일반인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강천로가 놓여 있다. 따라서 일념교를 세속과 성역을 가르는 진입 다리로 보기는 어렵고, 세속적 통행 공간 위에서 도장 안의 생활 공간과 수도의례 공간으로 이어지는 영역을 연결하는 다리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명칭 설명은 일념교의 위치와 동선이 지니는 수도적 의미를 해석하는 단서가 된다. 건너는 행위 자체를 일념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다리의 동선과 '일념교'라는 명칭이 결합하면서 수도인의 이동은 자신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강천로의 세속적 통행이나 일상생활 자체를 '두 마음'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문제는 세속의 흐름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상제와 대순진리를 향한 마음이 흐트러져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뉘는 데 있다. 반대로 일상과 사회 속에서도 상제와 대순진리를 향한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일념의 실천과 관련된다.

대순진리회의 수도가 특정한 수도의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교단 문헌의 설명도 앞의 해석과 부합한다. 우당은 기도만을 모시는 것이 수도가 아니라 때와 장소, 상대에 따라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수도라고 하였다.[67] 또한 "도장 내에서는 물론, 어느 곳에서

---

65)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경주 불국사 청운교 및 백운교」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GuidePostDetail.do?ccbaCpno=1113700230000&ccgbGbtype=IND&ccgbGbtypeNo=1&pageNo=1_5_0_0, 2026. 6. 22. 검색); 서지민, 「통일신라시대 불국사 건축과 중심불전의 주존불상에 관한 화엄교의적 고찰」, 『백산학보』 118 (2020), pp.321-325.

66) 민병삼, 앞의 글, p.63.

도 마음 속일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도장 안팎을 가리지 않고 일거일동을 신중히 하고 바르게 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68] 『대순지침』에서는 수도를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로 규정하고, 가정화합을 교화의 선행 과제로 제시하며, 공부자와 치성참례자의 자격에도 가화(家和)를 요구한다. 『전경』에서도 천지신명이 "각 사람과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고, 가정에 화기(和氣)를 잃으면 큰일을 맡기지 못한다고 한다.[69] 이를 통해 대순진리회의 수도는 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례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사회에서도 마음과 언행을 바르게 하고 가화와 도리를 실천하는 가운데 이어짐을 알 수 있다.[70] 도장 안팎에서 수도가 이어진다는 점은 세속적 통행과 수도인의 이동이 병존하는 일념교의 수직적 관계를 해석하는 맥락이 된다.

앞서 살펴본 일념의 방향성과 일념교의 위치·동선을 종합하면, 일념교의 건너감은 세속적 통행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목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념의 의미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일념을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설명한 내용과도 부합한다.[71] 그러므로 일념교는 세속적 통행을 배제하거나 벗어나는 공간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념의 수도적 의미를 환기하는 종교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67) 「도전님 훈시: 종통은 도의 생명」, 『대순회보』 5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6), p.2, "수도란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만 모시며 기다린다고 수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와 상대에 따라서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68) 「도전님 훈시: 해원상생으로 혁신하여 척을 짓지 말자」, 『대순회보』 35 (1993), p.2.

69) 『대순지침』, p.29, p.37, p.60; 『전경』, 교법 1장 42절, 행록 4장 7절, 행록 4장 19절; 박민미·황희연·박용철, 「대순사상의 남녀평등이념과 여성성 재조명: 여성해원의 원리로 본 공덕과 실천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9 (2017), pp.223-224.

70) 차선근, 「근대 한국의 신선 관념 변용: 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사상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2 (2011), pp.163-166 참조.

71) 교무부, 「일념교(一念橋)」, 『대순회보』 95 (2009), pp.78-79.

Ⅴ. 결론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일념교를 종교건축이자 종교공간으로 보고, 명칭과 공간 구조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일념교는 신생활관과 종무원 앞뜰 쪽 공간을 연결하면서 일반 차량과 사람들이 통행하는 강천로 위를 지나는 다리로, 준공 당시 “수도를 함에 있어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 부여되었다. 이에 관련 문헌에 나타난 일념과 일심의 용례를 검토하고, 일념교의 배치와 동선, 이용 방식, 주변 공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명칭에 담긴 수도 이해가 공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해석하였다.

명칭 분석에서 일념은 사려와 사심을 경계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서 상제와 대순진리를 향해 현재의 마음을 하나로 세우는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일심은 그렇게 세운 마음이 한결같이 이어지는 상태로 나타나며, 『전경』에서는 범사의 성취와 복록·덕화, 후천선경으로 나아갈 자격 등과 결부되어 제시된다. 천태학의 일념, 성리학의 주일무적, 조선 후기 「무상단어록」의 관련 용례는 대순진리회의 일념과 교리적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마음에 대한 주의, 마음을 하나로 세우는 것과 그 지속의 문제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살피는 데 참고가 되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은 수도인이 지향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나타내고, “나아가야 된다”는 표현은 그 마음을 향한 수도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일념교의 ‘일념’은 한결같은 일심을 지향하는 수도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간적 측면에서 일념교의 양쪽은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닌 도장 내부의 영역에 닿아 있다. 한쪽에는 수도인이 숙식하며 수도의례를 준비하는 신생활관이 있고, 다른 쪽은 종무원 앞뜰을 거쳐 수도의례 공간으로 이어진다. 수도인은 일념교를 통해 두 영역 사이를 왕복하며, 두 방향의 이동은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면서도 상제와 대순진리를 향한

한 마음이라는 공통된 수도적 지향을 갖는다.

강천로 위라는 위치에서는 수도인의 이동과 일반인의 통행이 서로 다른 높이에서 병존한다. 일념교의 두 끝이 모두 도장 내부의 공간에 닿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다리를 세속에서 성역으로 들어가는 경계나 진입 통로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일념교에서는 세속적 통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장 내부의 서로 다른 영역 사이에서 수도인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대순진리회의 수도가 특정한 의례에 한정되지 않고 가정과 사회에서도 이어진다는 종단 문헌의 설명은 일념교의 수직적 관계를 성과 속의 단절이 아닌, 도장 안팎에서 지속되는 수도의 맥락에서 이해하게 한다.

건너는 행위 자체를 일념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일념교'라는 명칭과 반복되는 통행이 결합하면서 수도인의 이동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일념교의 종교공간적 의미는 세속의 배제나 이탈에 있지 않으며, 일상과 사회 속에서도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념의 수도적 의미를 환기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대순진리회 도장 공간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주요 건축물에서 일상적으로 통과하는 이동 공간으로 넓혔다는 데 있다. 기존 연구가 영대(靈臺)와 내정(內庭) 등 도장의 중심적인 건축물과 그 상징 및 명칭에 주목해 왔다면, 일념교의 사례는 다리와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동 역시 대순진리회의 교리와 수도 이해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념교를 하나의 부속 시설이나 이동 수단으로 한정하지 않고, 명칭과 배치, 동선, 관련 해설과 실제 이용이 결합하면서 종교적 의미가 형성되고 경험되는 공간으로 파악하였다. 관련 문헌의 용례를 바탕으로 일념과 일심의 차이와 관계를 검토하고, '일념교'라는 명칭이 실제 이동과 결합하여 수도인이 자신의 마음가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언어적·공간적 표지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다른 종교 전통의 다리와 경계·이동 공간을 비교하여 일

념교가 지닌 종교공간적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념교 이외의 개별 건축물과 이동 공간에 관한 연구를 축적하여 여주본부도장의 공간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경험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도 요구된다. 개별 공간의 명칭과 배치, 수도인의 동선과 이용 방식이 도장 전체의 공간 질서 안에서 형성하는 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어진다면, 여주본부도장의 종교공간적 구성 원리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태극도통감』, 부산: 태극도본부, 1956.

「도전님 훈시 : 종통은 도의 생명」, 『대순회보』 5,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6.

「도전님 훈시 : 해원상생으로 혁신하여 척을 짓지 말자」, 『대순회보』 35,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3.

고남식, 「人間을 道와 合一 시켜주는 힘이 一心」, 『대순회보』 33,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_____, 「원효(元曉)의 화쟁(和諍)사상과 강증산(姜甑山)의 해원상생(解冤相生)사상 비교 : 화(和), 일심(一心), 해(解)와 관련하여」, 『동아시아고대학』 70, 2023. https://doi.org/10.17070/aeaas.2023.6.70.163

교무부, 「일념교(一念橋)」, 『대순회보』 95,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9.

_____, 「숭도문(崇道門)」, 『대순회보』 103,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_____, 「Q&A 게시판, 도장 내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대순회보』 160,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4.

김미숙, 「전통공간에서 나타나는 진입에 의한 전이 공간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6-1, 2005. http://uci.or.kr/G704-001069.2005.6.1.015

김인수, 「일심(一心)과 두 마음」, 『대순회보』 157,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4.

김지현 · 정재상, 「무상단어록(無相壇語錄) 역주」, 『도교문화연구』 60, 2024. https://doi.org/10.38113/jstc.2024.05.60.131

김진영, 「세계유산 관점에서의 대순진리회 도장의 가치」, 『대순사상논총』 35, 2020. https://doi.org/10.25050/jdaos.2020.35.0.393

김철호,「도덕적 명상으로서의 경(敬)」,『동양철학연구』81, 2015. https://doi.org/10.17299/tsep..81.201502.141

대순종교문화연구소,「도주님의 봉천명(奉天命) 1」,『대순회보』173,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5.

민병삼,「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 세계관 연구 : 여주본부도장을 중심으로」,『대순사상논총』27, 2016. https://doi.org/10.25050/jdaos.2016.27.0.35

박민미 · 황희연 · 박용철,「대순사상의 남녀평등이념과 여성성 재조명 : 여성해원의 원리로 본 공덕과 실천을 중심으로」,『대순사상논총』29, 2017. https://doi.org/10.25050/jdaos.2017.29.0.209

박상규,「대순 신앙의 천계(天界) 관념 : 무극도를 중심으로」,『종교연구』82-2, 2022. https://doi.org/10.21457/kars.2022.8.82.2.175

박상규 · 박선민 · 이호열,「『태극도통감』 수서본(手書本) 고증 : 팔괘도와 해설을 중심으로」,『대순종학』7, 2024. https://doi.org/10.23209/jods.2024.7.1

박진훈,「경복궁에 투영된 조선초기의 이상적 국정운영체계」,『역사와 실학』60, 2016. http://uci.or.kr/G704-002032.2016..60.006

박팽년,「報恩은 誠之又誠에서」,『대순회보』34,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백귀순,「불교 경전의 공간인식과 종교지리학적 원형 : 보리수와 4대 성지를 중심으로」,『동아시아불교문화』69, 2025. https://doi.org/10.21718/EABC.2025.69.08

빅터 터너,『상징의 숲 1』, 장용규 옮김,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20.

「새로운 수도장이 여주에 완공되다」,『대순회보』7,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7.

「생활관 실습 : 대진고교 여학생」,『대순회보』7,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7.

서지민,「통일신라시대 불국사 건축과 중심불전의 주존불상에 관한 화엄교의적 고찰」,『백산학보』118, 2020.

손영배, 「일심의 실천적 지향」, 『대순회보』 28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24.

신영대, 「풍수지리로 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대순사상논총』 33, 2019. https://doi.org/10.25050/jdaos.2019.33.0.91

_____, 「풍수 형기론(形氣論)으로 본 대순진리회 금강산토성수련도장」, 『대순사상논총』 36, 2020. https://doi.org/10.25050/jdaos.2020.36.0.35

안종수, 「유교의 명상법」, 『철학논총』 91-1, 2018. https://doi.org/10.20433/jnkpa.2018.01.91.187

유석구, 「無道世上 구원하는 大巡」, 『대순회보』 32,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이광주, 「주자학과 대순사상의 수양론 비교 연구」, 『대순사상논총』 24-2, 2015. https://doi.org/10.25050/jdaos.2015.24.2.231

임상목, 「천태의 一心 수용과 전개」, 『동아시아불교문화』 67, 2025. https://doi.org/10.21718/EABC.2025.67.05

임정화, 「여주본부도장 수도부」, 『대순회보』 226,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9.

장병국, 「믿음은 실행에서 열려져」, 『대순회보』 38,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3.

장지연, 「태조대 경복궁 전각명에 담긴 의미와 사상적 지향」, 『한국문화』 39, 2007. https://doi.org/10.22943/han.2007..39.003

정혜정, 「천태학(天台學)의 세계관과 지관(止觀)의 수행」, 『종교교육학연구』 20, 2005. http://uci.or.kr/G704-000911.2005.20..002

조너선 스미스, 『자리 잡기 : 의례 내의 이론을 찾아서』, 방원일 옮김, 서울: 이학사, 2009.

차선근, 「대순진리회 성지의 특징과 의미」, 『동아시아종교문화연구』 1, 2009.

_____, 「근대 한국의 신선 관념 변용 : 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사상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2, 2011. https://doi.org/10.21457/kars..62.201103.139

_____, 「대순진리회 수행 연구의 경향과 과제」, 『대순사상논총』 24-1, 2014. https://doi.org/10.25050/jdaos.2014.24.1.315

_____, 「대순사상의 정체성과 그 연구자료의 문제」, 『대순종학』 1, 2021. https://doi.org/10.23209/jods.2021.1.19

_____, 「대순진리회 도장 건축물 내정(內庭)에 대한 연구: 내정의 문헌 출처와 그 맥락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37, 2021. https://doi.org/10.25050/jdaos.2021.37.0.1

_____, 「스미스와 스미스, 종교학의 대장장이들: '종교'에서 '종교들'로」, 『종교연구』 82-2, 2022. https://doi.org/10.21457/kars.2022.8.82.2.87

_____, 「물질종교 관점에서 본 영대: 물질 영대와 비물질 영대 가로지르기」, 『대순사상논총』 44, 2023. https://doi.org/10.25050/jdaos.2023.44.0.53

_____, 「진법주와 『여조전서(呂祖全書)』로 살펴본 영대와 내정」, 『대순종학』 4, 2023.

_____, 「대순진리회의 세계관: 니니안 스마트의 종교 연구 접근법을 중심으로」, 『대순종학』 9, 2025.

최연정・이유나, 「성지 만들기: 한국 가톨릭의 천진암 성역화를 중심으로」, 『종교와 사회』 12-1, 2024. https://doi.org/10.22890/ajrs.12.1.202401.189

최치봉, 「『옥추보경』 집주본의 한국내 변용과 대순진리회와의 상관성 연구」, 『대순사상논총』 53, 2025. https://doi.org/10.25050/jdaos.2025.53.0.143

최화선, 「장소에 관한 새로운 종교학적 접근의 모색」, 『종교연구』 34, 2004. http://uci.or.kr/G704-000716.2004.통권.34집.011

허남진, 「대순진리회의 성지와 순례의 의미」, 『대순사상논총』 22, 2014. https://doi.org/10.25050/jdaos.2014.22.0.539

山口満・長善規・伊藤嘉記, 「参道空間における空間構成要素の誘引効果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69-582, 2004. https://doi.org/10.3130/aija.69.25_6

王鲁辛, 「道教宫观营建的"气论"观」, 『宗教学研究』 4, 2024.

Aaron French and Katharina Waldner, “Introduction: Modernity, Space and the Sacred,” in Aaron French and Katharina Waldner, eds., *Modernity and the Construction of Sacred Space*, Berlin/Boston: De Gruyter Oldenbourg, 2024. https://doi.org/10.1515/9783111062624-001

Birgit Meyer, David Morgan, Crispin Paine, and S. Brent Plate, “The Origin and Mission of Material Religion,” *Religion* 40:3, 2010. https://doi.org/10.1016/j.religion.2010.01.010

Caroline Starkey and Matt Coward-Gibbs, “Introduction: Translating Buddhism and the Politics of Ownership: Between Asia(s) and West(s),” *Journal of Global Buddhism* 19, 2018. https://doi.org/10.5281/zenodo.1494221

Georg Simmel, “The Bridge and the Door,” trans. Michael Kaern, *Qualitative Sociology* 17:4, 1994. https://doi.org/10.1007/BF02393338

Jonathan Z. Smith, *To Take Place: Toward Theory in Ritu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Kim Knott, *The Location of Religion: A Spatial Analysis*, London and Oakville: Equinox Publishing, 2005.

Martin Radermacher, “Space, Religion, and Bodies: Aspects of Concrete Emplacements of Religious Practice,” *Journal of Religion in Europe* 9:4, 2016. https://doi.org/10.1163/18748929-00904001

Peter Jordan, “Landscape and Names: The Role of Geographical Names in Space and Space-Related Identity Building,” *Folia Geographica* 16, 2010.

Seon-Keun Cha, “Is Sacred Site Discovered? Or Created?: A Case Study of Daesoon Jinrihoe,” in David W. Kim, ed., *Sacred Sites and Sacred Stories Across Cultures: Transmission of Oral Tradition, Myth, and Religiosity*,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2021. https://doi.org/10.1007/978-3-030-56522-0_12

Ursula Rao, “Sacred Space,” in Hilary Callan, ed.,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vol. 10, Hoboken: Wiley Blackwell, 2018.
https://doi.org/10.1002/9781118924396.wbiea1713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홈페이지》 https://www.heritage.go.kr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홈페이지》 https://www.daesoon.org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juso.go.kr

■ **Abstract**

The Religious-Spatial Significance of Ilnyeomgyo in Daesoon Jinrihoe: Focusing on Its Name and Spatial Structure

Pyeon Gyeong-il
Ph.D. Candidate, Department of Daesoon Studies, Daej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Ilnyeomgyo (Bridge of One-Mindedness) at the Yeoju Headquarters Temple Complex of Daesoon Jinrihoe as both religious architecture and religious space, focusing on its name and spatial structure. *Ilnyeomgyo* connects *Sinsaenghwalgwan* (New Living Hall) with the forecourt of the *Jongmuwon* (Religious Administration Building) and is explained as signifying that "in religious cultivation, one should advance with one mind rather than two." An analysis of relevant textual usages shows that *ilnyeom* refers to the volitional practice of guarding against misguided thoughts and selfish desires while directing the present mind toward Sangje and the truth of Daesoon in a single direction. By contrast, *ilsim* (singularly focused mind) denotes the sustained state in which the mind established in this way remains unwavering.

Spatially, *Sinsaenghwalgwan* functions as a living space where practitioners stay and prepare before participating in cultivation

rituals, while on the other side of *Ilnyeomgyo* are the *Jongmuwon*, *Daewonjong* (Great Vow Bell), and *Daesoonseongjeon* (Hall of Sacred Paintings), with the route continuing through *Sungdomun* (Dao-Worship Gate) toward *Jeongnae* (Interior Court) and *Yeongdae* (the Most Sacred Shrine), where major cultivation rituals take place. The round-trip movement across *Ilnyeomgyo* may be interpreted as reminding practitioners to direct their minds in a single direction toward Sangje and the truth of Daesoon before cultivation rituals and not to lose that orientation in everyday life after the rituals.

At the same time, practitioners cross the bridge while vehicles and pedestrians travel along *Gangcheon-ro* below, creating a vertical coexistence between the movement of practitioners and secular traffic. Accordingly, crossing *Ilnyeomgyo* is not a passage from the secular world into a sacred realm. Rather, it can be understood as a movement between the living space and the ritual space within the temple complex, through which practitioners are reminded not to lose the direction of their minds toward Sangje and the truth of Daesoon even while secular traffic continues below. Accordingly, through its horizontal connection and vertical coexistence, *Ilnyeomgyo* can be understood as a religious space that reminds practitioners of the practice of *ilnyeom*.

Keywords: Daesoon Jinrihoe, *Ilnyeomgyo* (一念橋), *ilnyeom* (一念), *ilsim* (一心), religious architecture, religious space, spatial structure

논문투고일 : 2026.07.25. 심사완료일 : 2026.09.01. 게재확정일 : 2026.09.28.